다산포럼

청보리와 보리누름

정 지 창

1970년대 이후 점점 줄어들어 찾아보기 힘들었던 보리밭이 요즘 들어 관광상품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 고창과 경북 영일에는 대규모의 보리밭이 조성되어 청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보리밭이 관광상품으로

또한 영화 '서편제'의 배경인 완도 청산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봄의 왈츠'의 촬영장 세트가 동화 속의 그림 같은 모습으로 꾸며지고 있다고 한다. 드라마 '겨울 연가'의 배경인 남이섬과 춘천이 관광 명소가 되었듯이, 청산도도 인기 드라마에 힘입어 또다른 관광지로 떠오를 것 같다.

보리밭이 관광상품으로 부각된 것은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그림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노란 유채꽃이나 연분홍 진달래, 하얀 벚꽃이 모두 멋진 사진의 배경으로 인기를 끄는 것처럼 파란 보리밭도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란 젊은 영상세대를 사로잡을 만한 시각적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보리가 곡식과 식량으로서의 가치보다 사진 배경으로서의 매력 때문에 상품성을 인정받는 것은 농경문화에서 도시영상문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다.

한 때 건강식으로 보리밥집이 인기를 끌면서 주곡이 아닌 잡곡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보리는 도시 여성들에게는 곡식이 아니라 봄철의 꽃꽂이 용으로 친숙한 화훼식물이 돼버린지 오래다.

그래도 보리밭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보릿고개의 어질어질한 아지랑이와 현기증, '앉은뱅이도 일어서고 곱사등이도 펴진다는' 보리누름의 풍요로운 기억이 가슴 한켠에 내장돼 있는 농경문화의 후예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보리밭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결핍과 고통과 연민이 뒤섞인 애틋한 향수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가령 한하운의 '보리 피리'에 나오는 남도의 붉은 황토길과 푸른 보리밭에는 문둥이 시인의 처절한 고통과 소외의 피울음이 배어 있고, 윤용하의 가곡 '보리밭'(박화목 시)에는 옛 사랑의 애틋한 추억이 저녁 노을처럼 곱게 깔려 있다.

향수의 진원지

그런가하면, 60~70년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보리'라는 수필의 한 구절은 요즘에 와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수필을 쓴 한흑구 선생을 기리는 시비가 포항의 보경사에 세워져 있고, 그를 기리는 '보리누름문학제'가 매년 6월 포항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 시비를 세우고 '보리누름문학제'를 만든 아동문학가 손춘익 선생의 추모비가 영일만을 바라보는 환호 해맞이 공원 바닷가 언덕에 서 있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정 경 희

약을 나눠 먹는다고?

증상이 유사하더라도 원인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똑같은 두통이라도 신경을 쓰거나 긴장을 했을 때,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소화불량일 때, 혈압이나 순환기계 이상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두통이 올 수 있다는 것.

통증이 있을 때 자주 먹는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만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약이지만 증상이 비슷하다고 원인도 모른 채 진통제만 쓰다가는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다.

두통약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성분은 심하면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슈도에페드린'이란 성분이 들어있는 콧물 감기약의 경우는 복용시 주의 사항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 성분이 포함된 약을 편두통이나 심장병, 고혈압 환자가 복용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일수록 복용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복용해야 한다. 약이 독이 되는 건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약물의 이름과 정확한 복용량 ▲복용 시기 및 방법 ▲복용시 주의해야 할 음식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약물이나 다른 물질에 알레르기 또는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 ▲담배와 커피 등 기호품 사용 여부 ▲임신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한다.

반드시 자신에게 처방·조제된 약만 복용하라는 얘기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서 약을 함께 복용 해서는 안 된다. 약은 나눠 먹는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약 효과를 높일 생각으로 또는 복용시간을 놓쳤다고 2회분을 한꺼번에 먹어서도 안된다.

효과가 2배로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약은 원래 투약 받은 약병 또는 봉투 상태로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한다.

보관을 잘못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거나 유효성분이 줄어들면,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탓에 폐기 처리해야 한다.

또 약을 원래 투약봉투나 투약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용법이나 유효기간 등과 같이 약 복용이나 보관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이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한 약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관상태가 적합하지 않았던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화학적 성분이 변한 상태의 약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약은 제대로 보관된 상태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적절한 약효를 발휘 할 수 있는것이다.

〈전남대 병원 약제부장〉

농촌 폐교, 노인요양 시설 활용을

지난 주말 부안에 있는 한 노인 요양시설을 다녀왔다.

폐교된 지 10년이 지난 학교를 고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바꾼 곳이다.

넓은 운동장은 야생화 꽃밭과 산책로로 조성됐고 건물은 숙소와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테니스장은 게이트볼 구장으로 탈바꿈됐다.

커다란 버드나무도 정자를 마련,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엔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농촌 인구가 계속 줄면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폐교를 새로운 용도로 찾아 활용하는게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흉물스럽게 버려진 공간, 그대로 방치하거나 놀리는 것 보다는 활용 방안을 찾는데 적극 나섰으면 한다.

특히 날로 늘어만 가는 노인들의 보금자리로 개보수된다면 경로당에 못지 않겠는가.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찰칵! 동물세상

현란하고 차가운 '게코 도마뱀'

도마뱀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바위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도마뱀부터 인도네시아의 150kg이 넘는 '코모도'. 사막에서 발을 데지 않기 위해 발을 번갈아 드는 사막 도마뱀이나 물위를 날듯이 달리는 바실리스크 도마뱀, 색깔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카멜레온 등 종류만 해도 수천 종이 넘는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 스타급 도마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도마뱀은 주로 열대에 살지만 사막을 비롯해 우리나라 온대지방 같은 지역에서도 살고 있다. 이번에 불곰 새끼를 다른 동물원에 분양하면서 선물로 게코(gecko) 도마뱀 한 마리를 받았다. 레오파드게코(일명 레게) 도마뱀인데 애완용 가게에서 보던 손바닥만큼 작은 것과는 영 딴판이다. 길이만 30cm가 넘고 손가락을 문다고 할 정도로 사납기까지 하다. 동물원에 도착한 뒤 즉시 습기가 풍부하고 어두운데다 따뜻하기까지한 수족관으로 옮겨놓았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던 것도 잠시 이제 서서히 기운을 회복, 스파이더 도마뱀 답게 수족관 천정까지 거꾸로 매달려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거나 유리로 된 수족관 곳곳에 붙어서 현란하고 블루리시한 색깔을 맘껏 뽐내고 있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아이들 식당 예절 가르쳐야

며칠 전 식당에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식당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식당 이곳 저곳을 뛰어다녔다. 아예 음식을 들고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이 식사중인 자리 바로 옆 바닥에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처음엔 '아직 어린이들인데 어쩔냐'는 생각으로 지나쳤다.

하지만 아이들이 비좁은 식당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음식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화가 났다. '아이들이니까'라는 생각에,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배려한다면 따금하게 교육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면 안돼', '그러지마'라는 교육 방식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지 못한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은 옳지 않다. 세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고 했다. 귀엽고 예쁜 자녀일수록 엄하게 키우고 제대로 키우자.

▲전화금·광주시 북구 용봉동

애완견 키울 땐 생명존중·책임감 중요

약 3주전부터 느닷없이 버려진 개 한 마리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손을 무는가 하면 무심코 개를 안았던 아이의 코를 심하게 물어뜯는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주민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주민들이 참다 못해 소방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119구조대가 출동, 포획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애완견 열풍이 일더니 각 가정마다 애완견을 키우거나 주위에서 안고 다니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됐다.

하지만 애완견을 직접 구입하거나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손쉽게 얻어 키웠다가 질병이 생겨 금전적 비용문제가 발생하거나 골칫거리가 되면 몰래 버려지는 개들도 많아지는 것 같다.

도심속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아이들 사고 위험을 비롯, 주택가나 아파트,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음식물 봉투를 지저분하게 헤쳐 놓아 민원을 불러 일으킨다.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상욱·목포시 대방동

시 설

'친절한 법원'보다 '신뢰받는 법원'이 중요

오늘은 제 43회 법의 날이다. 때맞춰 우리 법원은 권위주의를 벗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어제 판사들의 언행과 태도에 대한 개선지침을 담은 '법정운영 요강'을 발표, 법정에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할 것과 심지어는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날씨나 건강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섞을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청객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허용하자는 등 법정 분위기 개선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는 사회전반의 권위주의 문화 타파 흐름과 함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갈등이 충돌하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더 중요한 건 친절한 법원보다는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한다. 말투가 상냥한 판사보다는 거악(巨惡)에 추상같고 민초의 애환을 참작할 줄 아는 판사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신임 대법원장이 특정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직접 언급하는 마당이고 보면 굳이 '유전무죄'니 '유권무죄'니 하는 세간의 원망을 말할 필요도 없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나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등 판사의 재량은 극히 제한돼 있지만, 최선을 다한 판사 한사람 한사람의 판결은 사회를 통합하는 명약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사법환경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설치 이후 로스쿨 추진을 비롯, 법조계의 폐쇄성을 깨는 크고작은 변혁이 진행되고있다. 매체의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법의식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물결 속에 사법서비스 시장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럴 수록 우리의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해서는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이다'는 막연한 불신을 씻어내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환율 930원·油價 70달러 시대의 한국경제

환율 급락과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고유가와 원고(高)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수출을 포기하는 등 잇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4년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5% 경제성장률 달성 역시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939원80전을 기록해 940원대 마저 붕괴됐다. 지난 1997년 10월24일이후 최저치로 작년 말에 비해 무려 8%나 하락했다.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 역시 100엔당 810원대로 추락했다. 유가 폭등은 더욱 심각하다. 텍사스산 중질유는 이미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으며 중동산 두바이유도 7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유도입가격이 65달러를 넘어서면 무역흑자가 175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무역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초대형 악재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으로 국내 달러가 넘쳐나는데다 글로벌 달러약세 지속과 중국 위안화 절상 움직임까지 겹쳐 920원대 추락이 예견되고 있다. 유가 역시 이란 핵문제로 비롯된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정정불안, 계절적 유류 성수기 임박 등이 중첩돼 최악의 시나리오인 '배럴당 100달러 시대'까지 점쳐지고 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유가 상승의 상당부분은 환율하락으로 만회가 가능하며 경제 성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자원외교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제도적 지원으로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조직이나 비용을 줄이는 혁신경영으로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는 상생경영도 선결 과제다.

無 等 鼓

콘돔 그리고 티슈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은 있게 마련인지라,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 몫 잡으려는 거대기업부터 작은 장사치까지 모두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렇다면, 월드컵 기간 동안 가장 큰 재미를 볼만한 품목은 무엇일까. 물론 독일에서 열리니만큼 뭐니뭐니해도 맥주일 것이다. 괜들의 타는 갈증을 씻어주기엔 시원한 독일 맥주 이상은 없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원산인 그 유명한 프랑크 소시지도 안주로 많이 찾을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는 소시지를 구경할 수 없다. 햄버거에 밀려 경기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독일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맥도날드가 경기장 내 소시지 판매를 금지했다.

월드컵 특수라는 대목을 노리고 전 세계 매춘업계도 술렁이고 있는데 그럼, 다음은 콘돔? 동유럽, 남미, 동남아 등에서 독일 내 12개 개최도시로 몰려들 매춘부는 4만여 명이고 공략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이다. 그 정도 잡았다면 인기품목 상위에 랭크될 만하다.

세계여성 인권단체가 독일 정부의 매춘단속을 촉구하고 있고 FIFA도 국제인신매매 조직의 발호를 심히 걱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걱정뿐 대책은 없다. 콘돔 수요의 위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때문인지 한국이 프랑스와 조별경기 2차전을 치르는 라이프치히시는 콘돔을 아예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시당국은 그곳을 찾는 팬들이 대회기간 이용하게 될 버스와 전철(트램)에서 남성용 피임용품과 티슈, 플라스틱 호루라기 등 콘돔이 포함된 응급처치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티슈는 원정응원을 온 축구팬들이 자국 팀의 패배시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다고 하는데, 콘돔은 몰라도 한국팬들이 티슈를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아니 세계 최강 프랑스를 격파하고 감격의 눈물을 닦는데 그 티슈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